

인천지역 소비행태 개선연구회 연구활동 결과

□ 연구회 소개

○ 연구배경

- 인천시민이 서울·경기 등 역외에서 소비하는 비율인 역외 소비율이 52.8%로 높은 문제는 인천지역 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부진을 초래하여 결국 인천지역 고용과 가계소득의 부진 등 악순환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함.

○ 연구목적

- 인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외소비율을 낮추고, 역내소비 유입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 연구의원 : 강원모, 고준수, 김성수, 이병래 (김성준, 김희철, 노태손)

○ 연구활동

- 1월 22일 : 인천소비의 특성과 과제_김하운 경제특보
- 2월 19일 : 인천지역 소비행태 개선관련 자유토론
- 3월 19일 : 인천지역소득 현황과 과제_ 김하운 경제특보
- 5월 14일 : 인천e음이 변화시킬 인천의 미래_장병현 소상공인정책과장
- 6월 18일 : 인천시민의 역외소비 실태와 개선방안_조승현박사
- 8월 27일 : 인천의 소비 및 일자리 현황과 과제_김하운 경제특보
- 9월 25일 : 인천의 역외소비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자유 토론
- 10월 29일 : 인천지역 소비행태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 월별 연구활동 결과

- 1월 연구활동 결과(인천소비의 특성과 과제)

- 역외 통근 및 통학 증가 및 서울·경기 대비 인천 지역 내 소비의 편의성과 다양성 부족으로 인한 소비 유인 경쟁력 약화로 인천시민의 소비가 서울·경기로 편중되어 역외 소비율이 높은 반면, 지역 내 소비율은 낮아 인천경제 악순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

- 지역접근성·편의성 및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며 양질의 의료·교육서비스확충, 젊은 층의 유입을 위한 도시 마케팅과 인천지역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구축 등 지역 내 소비 유입을 제고 방안 필요

- 2월 연구활동 결과(인천지역 소비행태 개선관련 자유토론)

- 3월 연구활동 결과(인천 지역소득 현황과 과제)

- 인천이 소비의 역외 유출로 지역 내 생산과 소비의 원활한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와 함께 점차 확대되고 있는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이 지역 내 소비감소를 통해 같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분석
-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향토기업의 적극적 육성 및 유치기업의 지역화 지원, 인천의 고급인력 육성 및 지역자원 활용 확대, 본사유치 확대 및 인재유출억제, 자산축적을 통한 지역 금융 강화, 신용보완을 통한 지급이자 감축, 지역 브랜드 양성 및 대외적 도시 마케팅 강화 필요

- 5월 연구활동 결과(인천e음 전자상품권이 변화시킬 인천의 미래)

- 인천e음 전자상품권은 인천의 높은 역외 소비율을 개선하고, 소상공인 지원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거래를 증가시킴으로써 지역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지역 내 생산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불러와 선순환 구조의 인천경제에 도움
- 향후 복지제도와 인천e음 전자상품권을 연계하여 시민들에게 드리는 각종 지원금을 인천e음 전자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지자체 예산의 복지 지원금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어 복지와 지역경제가 선순환하게 됨.

- 6월 연구활동 결과(인천 시민의 역외소비 실태와 개선방안)

- 인천은 서울이나 경기와 비교할 때 주변 지역을 끌어들이는 경제거점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역외소비가 높은 취약한 구조를 안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밖으로는 서울과 경기의 거점 영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기북부 지역과 경기 서해안을 연결하는 인천 중심의 소비 거점권을 구축하고, 안으로는 인천 역내소비 창출형 교통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절실함.

- 8월 연구활동 결과(인천의 소비 및 일자리 현황과 과제)

- 인천의 1인당 경제지표는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인데 이중 1인당 민간 소비가 특히 낮은 수준이며, 인천의 1인당 민간소비 수준이 낮은 이유는 낮은 지역소득, 불리한 인구구성,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용 및 재무상황 등에 기인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근로자 자본 장비율이 낮아 생산성이 떨어지는데다 취업률도 낮아 1인당 지역소득이 낮고, 고령층 인구의 증가율이 높은데 비해, 상대적으로 일자리의 질이 낮은 한편 가계 자산이나 소득에 비해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 재무건전성이 취약한데 더하여, 경기변동에 따른 불안정성과 불가측성이 높은 점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인천의 민간 소비를 제약

- 9월 연구활동 결과(인천의 역외소비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자유토론)

- 수도권 제2순환도로와 GTX-B 개통시 이를 통한 소비의 역외유출이 다시 확대되지 않도록 인천의 소비산업 육성 및 인프라 확충 등 소비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대외도시마케팅 역량 제고를 위한 선제적 노력이 필요
- 송도의 신도시 환경과 쇼핑여건을 인천의 해양수산 자원과 결합하는 것, GTX-B와 수도권 제2순환도로 개통이 인천지역과 인천시민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
- 지난 9월 25일 현재 가입자 86만명, 발행액 9천 200억원으로 인천e음의 당초 목표인 가입자 70만명과 발행액 7천억원을 초과 달성하였고, 한국은행 발표자료 등에 의하면 역외소비율 개선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GTX-B노선 확정은 인천에 기회이자 위기일 수 있으므로, 친수공간과 석양, 미래도시 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등 인천의 장점을 살리고 이를 연계한 관광패키지 상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 등을 마련하여, 서울의 자본이 인천에 유입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 10월 연구활동 결과(인천지역 소비행태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 주제발표 : 인천지역 소비행태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이병래의원)
 - ▶ 인천연구원의 역외 소비 실태분석 결과 제시된 ▲경제거점역량 제고를 위하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를 활용하여 경기북부-인천연안-경기서해안권을 연결하는 해양 소비거점 구축 ▲전문직 서비스업종 육성 ▲인천e음 활성화 ▲역내소비

창출형 교통망체계 논의에서 소비변수를 적극적으로 반영 등 역외소비율 개선 방향을 제시

- 토론자 : 5명

▶ 조승현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수도권 지역별 업종별 소비현황)

☞ 수도권의 생활밀접형 12개 업종을 2019년 1월~8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심으로 분석하여, 가전가구와 백화점의 서울 쓸림현상이 증가하며, 인천뿐만 아니라 경기의 관련 업종 역외소비율이 2018년 대비 2019년에 증가하고 있음을 밝힘.

▶ 강원모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인천 역외소비율의 교훈과 자급도시로의 발전)

☞ 인천의 역외소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해하고 인천경제가 한 걸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천의 내재적 발전을 적극 도모할 시기가 다가왔다고 판단하고 서울과의 교통접근성이 우선적으로 강조되다 보니 인천 내부의 교통망은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지적하며 인천 지하철 1,2호선을 넘어서서 인천의 부도심과 부도심을 연결하는 교통망 특히 지하철 건설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인천의 자급 도시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천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천경제 자유구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제시

▶ 고존수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인천지역소득의 역외유출에 따른 교통요인·산업요인의 현황과 방안 모색)

☞ 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에 이어 제3의 교통혁명으로 평가받는 수도권광역급행열차 GTX-B개통이 오히려 인천의 인력과 소비유출을 불러와 서울이 인천의 경제력을 흡수하는 블랙홀 역할로 서울 집중화 현상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광역교통망을 통한 지역소득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서울이 갖지 못한 해양자원인 내항 재개발 등을 활용한 해양 소비거점을 만들어 타 지역의 소비를 인천으로 끌어 오고 지역화폐를 통한 역외소비 방지와 인천만의 색채가 있는 관광명소를 개발하고, 지역 외 소득유출의 결정적 요소인 인력유출, 지역 건설업체의 일감확보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제시

▶ 김하운 (인천광역시 경제특별보좌관)

(인천지역 소비행태 개선방향)

☞ 인천지역 소비유출 억제보다는 소비경쟁력 및 유인정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기업 및 점포를 적극 유치하는 한편 이들을 지역화하는 데 노력함과 아울러

향토기업 및 점포의 경쟁력 강화지원과 대외적인 도시마케팅 확대를 통하여 인천지역 소비행태를 개선하는 방향제시

▶ 안광호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인천e음 운영팀장)

(전자상품권 플랫폼 소재)

☞ 인천e음 도입 이후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SSM)의 매출 중 239억원이 슈퍼마켓, 편의점 매출로 대체되어 해당업종에 투입된 캐시백 금액 77억원의 3배의 효과를 보았으며, 대형마트의 시장점유율 감소폭은 확대되는 반면 골목상권인 슈퍼마켓, 편의점의 시장점유율은 증가되는 등 인천의 소비행태가 개선된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정성적으로도 시민들이 인천e음을 사용하면서 소비시 지역경제를 고려하는 가치소비를 하는 등 소비행태가 개선되고 있다며, 이러한 효과를 지속·확대하기 위해 캐시백 요율을 최소 3% 수준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공유경제몰, 크라우드펀딩, 두레자금 등 인천e음 플랫폼 내 부가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소비자가 편리하게 사용하면서도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 중이며, 이를 통해 인천의 역외소비를 줄이고 소비유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힘.

○ 역외소비 실태 분석 결과: 인천연구원 조승현 연구위원 정책연구결과
(인천연구원, 신용카드 중심의 인천 역외소비 실태 분석)

- 연구 배경

- . 인천시민의 서울과 경기에서의 역외소비 문제는 수도권경제에 속한 인천 지역경제가 풀어야 할 주요 과제임.
- . 인천의 역외소비율은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역 소비시장의 위축과 영세화로 지역 소비시장에 대한 투자와 발전가능성을 제약하는 요인
- .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도권에서 인천경제 위상을 확립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시민의 소비와 지역 소비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의 필요성

- 연구 목적

- . 신용카드 사용 자료 분석을 통하여 인천지역의 역외 소비율 추이와 특성을 파악하고 원인을 규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연구 분석 결과(요약)

- . 인천시민의 카드 사용은 2014년 24조 1천억원에서 2018년 33조 5천억원으로 연평균 8.5% 성장
- . 인천상점 카드매출은 2014년 15조 8천억원에서 2018년 21조 9천억원으로 연평균 8.5% 성장

- . 전업종을 포함한 역외소비율은 2014년 50.33%에서 2018년 50.92%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이지만 전자상거래업종을 제외한 역외소비율은 2014년 44.10%에서 2018년 43.28%로 감소추세
- . 2018년 기준 역외소비액 비중 상위 5개업종은 전자상거래, 각종요금, 한식, 주유, 할인점 슈퍼마켓순으로 전체 역외소비액의 59.23%인 10조 1,298억 원
- . 2018년 기준 인천시민의 평일 역외소비율은 54.28%로 54%대로 유지되고 공휴일의 역외소비율은 41.23%에서 44.54%로 증가 추세로 쇼핑몰, 대량 양판점, 쇼핑센터 등에서 소비가 급증
- . 군구 역외소비는 2018년 기준 강화군이 22.86%로 최저이며, 동구가 66.09%로 최고, 옹진군이 50.23%, 미추홀구가 48.72%, 나머지 구는 30%대
 - 역외 소비율 전망
 - . 오프라인업종의 역외소비율은 적은 폭의 등락이 있지만 감소할 것으로 전망
 - . 인천지역에 공급되는 대형쇼핑몰, 할인점, 백화점의 양과 질에 따라 서울과 경기 소비 대체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
- 역외 소비율 개선방향
- . 경제거점역량 제고를 위하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를 활용하여 경기북부-인천연안-경기서해안권을 연결하는 해양 소비거점 구축
- . 전문직 서비스업종 육성
- . 지역 이해관계와 개별소비자 이해관계의 조율을 위하여 인천e음 활성화
- . 역내소비 창출형 교통망체계 논의에서 소비변수를 적극적으로 반영

□ 연구회 활동사진

1월 연구활동 사진	3월 연구활동 사진
	

5월 연구활동 사진



6월 연구활동 사진



8월 연구활동 사진



9월 연구활동 사진



10월 연구활동 사진



10월 연구활동 사진

